

# 경기도, 섬유산업에 543억원 투입

연천에 대형 섬유·염색산업단지 조성 ... 18만㎡ 부지에 2011년 완공

경기도 연천군에 대형 섬유·염색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 제2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연천군 청산면 한센촌 18만5000㎡ 부지에 534억원을 들여 섬유·염색 산업을 위한 청업단지를 조성한다고 6월23일 밝혔다.

도(道)2청은 2001년부터 청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구상하고 2009년 초 공업용지 19만㎡를 배정받았으나 섬유·염색기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환경부의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에 막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한탄강 유역 수질개선을 조건으로 5월18일 관련고시를 개정·공포하면서 섬유·염색기업의 입지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도2청은 공장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대로 기본·실시계획을 마련해 2009년 3월 산업단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설이 낡았거나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에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2청은 산업단지 설계 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100% 국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3>